

마태복음 21:1-22절 개관도표  
주제 :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1-22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요절 :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21장은 내용과 분량 상 두 문단(1-22, 23-46)으로 나누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수차에 걸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개선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개선장군인가 아닌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서의 남은 부분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행위,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시는 행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행위 등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행위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구속사적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1) 나귀 타고 입성하심

둘째 단원(12-17) 강도의 굴혈같이 된 성전

셋째 단원(18-2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첫째 단원(1-11) 나귀 타고 입성하심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1).

①, “이르시되 너희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2)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하셨는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4) 합니다. 마태는 철두철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성경의 증거(證據)를 들어서 입증(立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요 5:39),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②, 스가랴는 이사야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슥 9:9) 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요약하면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구원의 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 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새끼를 탔도다”라는 묘사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나귀새끼를 탄 왕이나, 정복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③, 이를 구속사라는 넓은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더욱 뜻이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상 나귀는 어떤 존재인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라 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출 13:13)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귀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속, 즉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정한 나귀가 다윗의 위에 오르실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다니!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3) 하여 끌고 와서 주님을 태우는 축복을 받은 나귀새끼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④,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 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나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어린양이 아닌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1).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자를 잡기위해서 사자 굴로 들어오신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15), 거기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⑤, “우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9) 합니다.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이는 시편 118:25-2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노래가 메시아께 바치는 노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27:23) 하고 외치다니, 이는 저들의 책임이기보다는 저들 앞에 천국 문을 닫은, 즉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의 책임이 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는 “화가 있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⑥,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 누구뇨”(10) 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속사에 있어서 그 분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두 번의 혁명적인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24:30) 하신 재림의 날입니다. 그 때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계21:9)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11).

#### 둘째 단원(12-17) 강도의 굴혈같이 된 성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12).

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 매매하는 일” 등은 당연히 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례적인 일

이 되다보니 순례자들의 편의제공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치부하는 수단으로 전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②, 주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13). 저희가 아는 대로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온 한 청년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부패의 온상을 타파하신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 보아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 성전이 정결케 되었으니 바른 제사를 드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천 5백 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드러지던 제물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혁(改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히 9:10).

③, 주님께서 “기록된바” 하고 인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인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그의 집(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외치라 명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렘 7:4, 11) 하고 말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인가? 성전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신 메시아언약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성전”도 아니며, “제물”도 우상의 제물(사 66:3)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물”을 명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임하실 것과, 단 번에 드러 주실 대속제물의 예표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배척하면서 제사의식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돈이나 뜯어먹는다는 이는 “도적의 굴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④,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의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 4:23)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저 제사장 서기관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양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도 “신령과 진정”, 곧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 말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15) 했다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개혁”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⑤,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16:21,20:18)에 의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바로 이들이 “분이 여기며,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14, 23) 하고 본격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이제 구원하소서)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16상), 주님의 답변은 단호(斷乎)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16하) 하고 반격을 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신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거기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5)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히 2:9) 하고 주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

라”(시 8:2) 하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하였으면 “어린 아이와 젓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를 인용하셔서 저들을 잠잠케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셋째 단원(18-2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18).

①,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19) 합니다. 이를 표면만 본다면 매우 난처한 문제가 대두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즉시 마르게 할 권세가 있는 분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듯 저주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심이 분명 합니다. 이를 “행위계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 기에게, 찍어 버리라”(눅 13: 6-7) 말씀하심을 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분명 이스라엘 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43)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이 기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13) 하신 말씀과 결부되는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체(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 “강도”에게 점령당한 소굴이 되었다면, 그런 무화과나무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막 11:13) 하고,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③,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20)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뿐 그 의미를 깨달을 만한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답을 피하신체 여기서는 다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22) 하고 언급하실 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좀 더 뒤에 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23:37-38) 하고 주어집니다.

④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는 더욱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백성”(43)이 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성경은 답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으니”(갈 3:13),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인양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윤리로 여겨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4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유대인)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방인)이 받으리라” 하심이, 우리의 윤리가 유대인보다 낮

기 때문이란 말씀인가?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언제나 관대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주님이 비난을 받으셨을 때에도(12:1-8),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26:41) 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선행의 열매가 부족한 형제를 정죄한다면 이는 주님의 본의는 아닌 것입니다.

⑤ 그러나 형제여, 주님은 이제도 “시장”(18) 하시고, 이제도 “목마르다”(요 19:28) 하십니다. 이제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입술로만 “호산나”를 부르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지는 아니 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1:23-46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됨

요절 :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본 문단의 내용은, "두 아들의 비유"(28-32)와, "악한 농부의 비유"(33-41)와, 두 비유에서 유추한 결론적인 말씀(42-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과, 셋째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언도로써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어찌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이런 언도를 받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21장 전체로 본다면, 첫째는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고, 둘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되었고, 셋째는 "말아들같이 불순종"했으며, 넷째는 "악한 농부"같이 반역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건설은 포기하신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23-32) 두 아들의 비유

둘째 단원(33-41) 악한 농부의 비유

셋째 단원(42-46)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짐

첫째 단원(23-32) 두 아들의 비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말아들에게 가서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28).

1. "두 아들의 비유"는, 도적의 굴혈을 만든 성전을 주님께서 뒤엎으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23) 하고 힐난(詰難)한 논쟁에 이어서 하신 비유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일,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권세를 위임해주어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24-25),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반격을 가하십니다. 주님은 저들의 불순한 동기를 간파하시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

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7:6) 하신 대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3. 어찌하여 "세레 요한"의 권세를 들어 반문하셨는가? 이렇게 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뜻에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레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 임이 명백해진 이상, 그가 증거한 주님의 권세도 "하늘로서"임이 더욱 명백하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권세로 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아 드린 반면 교권주의자들은 받아 드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증거를 배척할 것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라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 하고 메시아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언 속에는, "길 예비자, 언약의 사자(그리스도), 그 전에 임하시라" 하고, 세레 요한, 그리스도, 그 전(성전)이 다 들어 있어서 주님이 처하신 21장의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길 예비자는 이미 왔으며 언약의 사자가 그 전에 임하셨건만 저들은 이를 몰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1. 저들이 대답을 회피하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라"(27) 하시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28-29), 이 말아들은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가겠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2.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30) 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나 죄인"(32), 나아가 이방인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싫소이다"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이야 뉘우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 된 자요, "이른 아침"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제 십 일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3.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31상). 이제 깨닫게 되었던 말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31하-32).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중될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시라"(19) 하신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가 된 것입니다.

둘째 단원(33-41) 악한 농부의 비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33).

1. 주님은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저들의 배은망덕을 강화해 나가십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곧 구약교회요, 농부들은 교회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십니다.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35-36) 합니다. 이는 정확하게 구약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 가리라"(23:35)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려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5:4, 29:19).

2.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37), 악한 농부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아들을 공경했다는 말인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38)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시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는 말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영광을 찬탈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이란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 8:44) 하고 이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8: 11). 구속사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3.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40),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41). 이 "진멸"은 주후 70년 경에 문자적으로 응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비유는 "절뚝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는 진리의 어느 한 면만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비유에서 불변의 원리를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참으로 절묘한 비유라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42-46)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42).



1, 주님은 저들의 대답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41) 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자, 주님은 시편 118편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주님께 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한 말씀과, 건축자들, 즉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 함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돌"로 상징하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풍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사 28:16) 하고,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사 8:14-15)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 이러한 배은망덕은 주님 당시가 처음도 아니요, 마지막도 아닙니다. 이런 배신 행위는 에덴에서 일어났으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예견된 바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는 반석,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4, 15, 18)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고 밭로 찻도다 내가 살찌매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15) 합니다. "우매 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6) 하고 한탄합니다. "반석"을 밭로 찻다는 말씀은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렇다면 이처럼 배은망덕한 "건축자"는 누구들인가?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행 4:5-11) 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임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주님을 "그의 집 맡은 아들"(히 3:5-6)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건설의 건축자, 즉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축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형제를 "건축자"로 들어 쓰심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5,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43), 즉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첨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44상) 하십니다. 이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 즉 대적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44하) 하십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최후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 쓰리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단

2:34-35) 한 예언을 엄두에 두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건축자들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예언은 참으로 의미 심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계획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사" 도리어 머릿돌로 삼으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롬 3:3-4) 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 속에는 저들이 주님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부활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7, 결론이 이에 이르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45)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인 우리를 향하여,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롬 11:19-21)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약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2:5, 3:16) 하고 경고하십니다. 현대교회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되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